“오랜만에 주방에 서니 감회가 새롭네요”

신경마비 딛고 병원 직원·환자들에 짜장밥 선사한 조성태씨

지난 5월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팔·다리 마비
청연한방병원서 재활치료 건강 호전…“음식으로 보답”

“35년 동안 해왔던 일을 치료 때문에 멈추고 6개월 만에 주방에 들어왔는데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팔다리에 마비증세를 보인 50대가 수개월간의 치료 후 자신이 치료 받던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짜장밥을 제공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7일 청연한방병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던 조성태(59)씨는 지난 5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 뒤 마비증세를 보여 청연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후 청연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강정훈 원장에게 집중 치료를 받았다.

강 원장은 치료 당시 조씨에게 “언젠가 상태가 호전되면 우리 병원에서 맛있는 짜장 한번 맛 보여달라”며 응원했고 조씨도 이에 발맞춰 열심히 재활 치료에 임했다.

이처럼 성실히 재활치료에 임한 끝에 처음에는 손발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조씨는 현재는 거동은 물론 팔도 움직이는 등 몸 상태가 상당히 호전됐다.

이에 조씨는 퇴원을 앞두고 꼭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내 짜장 맛을 선보여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지난 4일 점심 메뉴를 짜장밥으로 선택했다.

조씨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병원 조리사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이날 아침부터 자신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짜장 소스 230인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같은 소식이 병원 내부에 전해지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입원해 있는 환자들 모두 감동을 받았다.

병원 직원들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가 이렇게 손수 짜장을 만들어 줘서 감동을 받았다”며 “환자 개개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조씨를 진료했던 강정훈 원장은 “조씨가 재활치료에 성실히 임해서 이렇게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 같다”며 “조씨가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는 “청연한방병원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퇴원을 하는데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해서 예전처럼 식당도 운영하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도 노력하겠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

김재열 조선대 교수 한국산학연협회 협의체 회장 선출

김재열 조선대 산학융합 연구마을 산업단장(기계시스템 미래자동차공학부)이 한국산학연협회 협의체 회장에 선출됐다.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조선대를 비롯해 대구대·순천향대·전남대·전북대·고려대·금오공대 등 20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학연협회 협의체는 산학연 성과발표회, 산학연협회 코디네이터 간담회, 수행기관 해외연수 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김재열 사업단장은 지난 2013년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의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사업에 선정돼 생산제조와 금형관력 학과가 이전한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를 기반으로 ‘생산제조 및 금형산업 산학융합 연구마을’을 2년 동안 운영했다. 또 지난해에는 2기 사업에 재선정돼 15억-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인프라, 기술, 인력을 결합해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김동윤 목포시 실무관 ‘청백봉사상’

목포시청 회계과 김동윤(49) 실무관이 제40회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05년 1월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 실무관은 목포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목포시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공무원’으로 칭찬이 자자하다.

12년의 공직 생활 대부분을 청사관리 업무에 전념해 온 김 실무관은 매일 민방위복과 작업 장갑을 착용하고 부지런히 청사를 순회하며 쾌적한 청사 조성에 구슬땀을 흘려왔다.

특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냉난방기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청사 내 전등 ‘1인 1등 더 끄기’ 운동, 고효율 LED 전등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해 목포시가 행정자치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 실무관은 나눔도 적극 실천해오고 있다. 목포상리사회복지관, 목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4천시간 이상 재능을 기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소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오고 있다. 헌혈로도 선행을 실천해 17살 때부터 헌혈을 시작해 지금까지 347회를 실시해 목포 기네스북에 목포시 최다 헌혈 시민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상금 2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인 김 실무관은 “앞으로도 궂은 일은 내 일이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자 어려운 이웃들과 늘 나누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송원대 간호학과 94명 ‘나이팅게일 선서식’

송원대(총장 최수태) 간호학과(학과장 류화라)는 지난 4일 대학 대강당에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 받아 미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다짐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일동이 마련한 나이팅게일 장학금이 수여됐고, 1학년 재학생들은 나이팅게일 선서생들을 위해 축가와 오카리나 연주를 불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친 간호학과 2학년 94명의 학생들은 겨울 방학부터 시작되는 임상실습을 시작으로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수태 총장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실력과 인간애를 갖춘 전문 간호인으로서 환자, 나아가 인류의 건강을 수호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제46회 광주사단합동전·시상식·사진인의 밤 행사

사진문화예술인들의 화합의 장인 ‘제46회 광주사단합동전·시상식·사진인의 밤’ 행사가 지난 4일 오후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지회장 선종백) 소속 50여개 동호회 및 문화예술계 관계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지역 사진예술인들의 총집합그룹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사단합동전’은 9일까지 진행된다.

/김영근 기자 kyg@kjdaily.com

광주대 ‘청소년과 함께하는 Dream-up’ 창업캠프

서진여고 참여 경진대회도

광주대(총장 김혁종) 창업동아리와 지역 고등학생이 함께한 창업역량강화 캠프가 열렸다.

7일 광주대 LINC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틀간 중소기업진흥원 호남연수원에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2016 청소년과 함께하는 Dream-up’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창업역량강화 캠프는 광주대 창업동아리와 광주 서진여자고등학교 학생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창업캠프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성공창업 특강,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을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발상 기법 특강이 진행됐다.

창업아이디어 실습 시간에는 광주대 재학생과 서진여고 학생들이 함께 팀을 구성해 신규 창업 아이템을 기획했고, 이어 상호 평가 및 모의투자 시뮬레이션, 심사위원 평가 등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함께 열렸다.

경진대회에서는 한아름·이성욱·변진희·장선영(이상 서진여고) 학생과 박민서·최성민(이상 광주대)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방수와 보온기능이 구현된 가방’을 주제로 기획한 아이디어로 대상을 받았다.

광주대 창업교육센터 윤인철 센터장은 “창업역량강화 캠프는 광주대 창업동아리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창업 저변 확대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대 내에 조성된 창업 열기가 지역사회로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도시공사, 시민감사관 5명 위촉 본격활동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경영 전반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와 시민소통을 위해 시민감사관 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간이다.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코리아노무법인 이사 양정하, 변호사 임정훈, 회계사 강대석, 환경연구소 바른대표 박종석, 건축사 정영범 5명이다.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시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임직원의 비위 부조리, 여성발전과 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자체감사,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 현장점검 참여, 공사 현안사업 추진 의견제시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동신대 직원사회봉사단, 독거노인 봉사활동

동신대(총장 김필식) 직원사회봉사단이 최근 나주시 독거노인을 위해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나주시 독거노인을 방문해 수 년 동안 집 안팎에 쌓인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청소를 실시했다.

동신대 직원사회봉사단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 광주북구장학회 5천만원 기탁

박치영(사진 오른쪽 두번째) ㈜모아종합건설 회장은 7일 오후 광주 북구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5천만원을 (재)북구장학회에 전달했다.

북구 장학회는 2007년 설립 현재 63억6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지난해까지 1천267명에게 10억8천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북구장학는 올해 136명에게 1억1천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전남대 공대-한전 전력계통본부 ‘인재양성’ 협약

전남대 공과대학(학장 김영만)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가 지난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VIP실에서 고압직류송전(HVDC) 인재양성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정을 통해 ▲HVDC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HVDC 분야 전문가 특강 및 실무 현장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남대 공과대학 관계자는 “HVDC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남대와 한전이 HVDC 교육과정개설 및 실무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산학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박안심님 별세, 강현수, 효숙, 순덕, 덕자, 현순씨 모친상 · 이영길, 최철의, 안규백, 김용태씨 빙모상=발인:8일(화) 오전8시, 장지:영락공원, 연락처:본관2층특실7분향소(250-4407)

▲나경수님 별세, 정숙씨 부친상=발인:8일(화) 오전11시, 장지:영락공원(화), 연락처:본관지하5분향소(250-4405)

▲정필례님 별세,오상렬, 정훈, 공렬, 경렬, 영희, 정희씨 모친상 · 나흥수 빙모상=발인:8일(화) 오전9시, 장지:광산구왕동선영(매), 연락처:신관2층특VIP실예궁(250-4470)

▲홍순열님 별세(배우자:백진순님), 형표, 선표, 성표씨 부친상=발인:9일(수) 오전8시, 장지:담양남면선영(화), 연락처:본관지하6분향소(250-4406)

그린장례식장(주) 24시 대기 TEL.062)250-4455
www.greenfuneral.co.kr

동문·동창회

●광주북성중총동창회(회장 조정래) 한마음 체육대회=12일(토) 오전 11시 고창CC 및 변산마실길(오전 9시30분 모교 출발), 문의 박동수 고문 010-6778-1998

등산

●광주 호산회, 해남 두륜산 단풍산행=12일(토) 오전 6시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롯데백화점, 문예회관 경유(010-4621-2166)

CMYK